

모두가 승자입니다



승자는 환호하고 패자는 아쉬워하는 것, 모든 스포츠 경기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일까요.

지난 11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일곡 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1회 프로스펙스 전국 풋살대회 광주·전남 지역 예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미니 축구로 알려져 있는 풋살 대회에 미래의 '박지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더군요.

일반 축구장의 4분의 1정도 되는 그라운드를 쉴 새 없이 뛰어다니던 아이들, 전·후반 5분씩 지나고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표정이 눈에 띄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찍어놓고 보니 한 눈에 승자와 패자를 알았습니다. 팔짝팔짝 뛰며 기뻐하는 아이들과 탈락이 허탈한 듯 아쉬워하는 아이들의 표정 차이가 확연합니다.

또 하나, 경기장 옆을 따라 뛰면서 아이 이름을 외치며 응원하는 아빠들, 아들 이름을 외치며 열광적 응원을 펼치던 엄마들 보십시오.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하고 아이들의 등을 다독이며 "잘했다"며 위로하는 경기장 밖 엄마·아빠들의 표정도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되고, 내일의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승패 자체보다 최선을 다해 뛰다보면 많은 것을 배우지 않을까요.

/나영기자 mjna@kwangju.co.kr

뉴스퀴즈 75·76회 광영미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75·76회 뉴스퀴즈 추첨 결과, 광영미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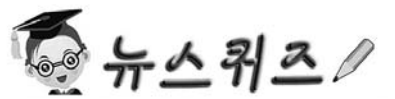
광씨는 13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75·76회 뉴스퀴즈에는 업서와 편지로 297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광영미·광주시 동구 산수동
2등 ▲노선아·광주시 북구 두암동



77.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개최된다고 남북 정부가 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에 이은 두번째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나 합의를 도출해 낼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열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 ①평양
- ②서울
- ③제주도
- ④광주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오 세 승

일전에 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 공중파를 통해 방송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똥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처럼 학생들의 '인권' 측면에서 본다면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당연히 사라져야겠지요. 하지만 교육 현장이 항상 사람으로 충만한 공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체벌에 관한 단상(斷想)

단기적인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5년간의 교직 생활 대부분을, 흔히 말하는 '교편(敎鞭)'을 잡고, 학생들을 때문 엄하게 대하면서, 일선에서 학생들과 대면하고 있지요. 저 역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주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체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지만, 어쩌면 이 방법이 더 손쉽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체벌에 길들여져 왔고, 또 그것을 당연시 하면서 자랐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선생님들께 "때려서라도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디반사였지요. 또한 체벌은 끝사

랑의 매'라고 등식화 하고 체벌의 정당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고, 부모들은 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니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작은 체벌에도 학생들은 납득하지 않고 반항하며, 부모들은 사법기관과 여론을 들먹이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체벌 금지'에 관한 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쏟아집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체벌하면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112에 신고하겠다고 버리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에 관한 학교에서 한 치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고 눈과 귀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 교무실에 모여 '이젠 아이들

을 대하기가 너무나 조심스럽다'고 자조 섞인 한탄을 합니다. 언젠가는 매의 규격을 정해 주다니, 이전 신체 접촉 대신에 별점 카드를 부여하는 소극적 방법을 동원하여 인성을 수치로 계량화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점차 삭막해져 갑니다. 순자의 말을 빌면 스승은 인간을 교화하고 예의(禮儀)를 가르쳐 사회가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사들은 변해가는 교육환경 속에서 참스승의 역할을 하는데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신안군으로 갈까 합니다. 그곳은 제가 열정을 가지고 교직을 처음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때 가슴에 새겼던 말이 떠오릅니다 "참스승은 권위를 버리고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관심과 칭찬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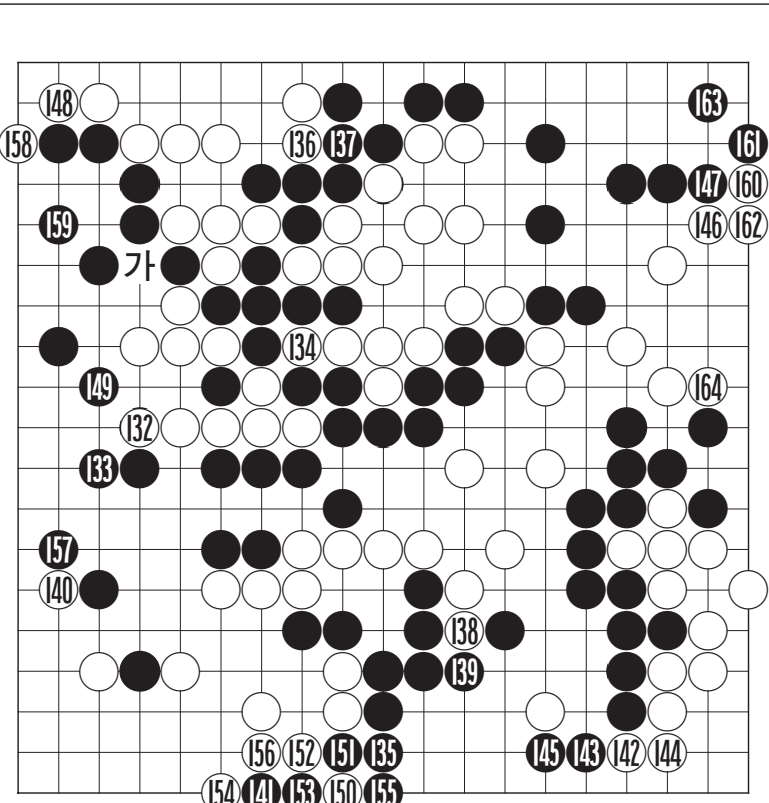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의 자세를 힘써 실천하려 합니다.

(청년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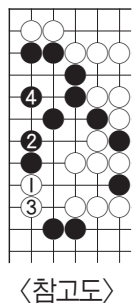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4일(음 7월 2일 庚辰)

子	36년생 부부사이 새로운 사람이 신생한다. 48년생 융호상박이나 결과는 반반이다. 60년생 사방이 소란하니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72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84년생 손재수나 배플면 득이 온다. 행운의 숫자: 24, 41
丑	37년생 큰 덕은 자신에 있다. 49년생 시비가 생겨도 자신에게 기운다. 61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성사 될 수 있다. 73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니 신택을 숙고하라. 85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고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0, 27
寅	38년생 申이 나타나서 결말을 내놓는다. 50년생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뛰어들라. 62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74년생 내 것 잃고 속상한다. 행운의 숫자: 18, 43
卯	39년생 여유로운 하루로다. 51년생 전회위박이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리라. 63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있다. 75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다. 행운의 숫자: 10, 32
辰	40년생 가내 기쁘고다 인자함을 보여주라. 52년생 신념을 살려가며 매사에 관용을 베풀라. 64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며 지내라. 76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웃기게 자신은 우울하다. 행운의 숫자: 06, 42
巳	41년생 사기꾼이 달려오니 주변을 경계하라. 53년생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65년생 돌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77년생 과욕하면 결과가 손해로 연결되니 욕심을 버려라. 행운의 숫자: 13, 28
午	42년생 申의 불편사가 발생한다. 54년생 가정과 親의 불편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격정된다. 66년생 부부사이 열거 불협이 발생할 수도 있다. 78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08, 34
未	43년생 비정한 고충이 측근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 55년생 부부사이를 이간질 할 가까운 사람이 나온다. 67년생 이해없는 선간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79년생 짐쳐 속에 실리도 있다. 행운의 숫자: 17, 40
申	44년생 자녀 직업으로 인해서 고역이 증중하니 마음을 다스려라. 56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68년생 남의 말로 손재가 우려되니 가려서 들어라. 80년생 매사가 지체되고 결과가 늦어진다. 행운의 숫자: 22, 39
酉	45년생 모든 일이 침체나 종래는 안정하게 지리한다. 57년생 평상일을 집중하라 발전이 있으리라. 69년생 친구 간에 좋은 일은 발생하나 돌변을 조심하라. 81년생 짐쳐하게 서행하면 오히려 빠르리라. 행운의 숫자: 15, 16
戌	46년생 새 문서가 눈을 낸다. 58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아야 흥이 있다. 70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신성되어 자유롭게 진행된다. 82년생 예지 못한 역습이나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21, 25
亥	47년생 癸의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 되면서 여유가 있다. 59년생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71년생 결과가 의외로 좋은 하루다. 83년생 조용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05, 3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3회전 선수 끝내기의 중요성 8보(132~164)



<참고도>

지금부터는 끝내기가. 귀중한 선수를 흑이 잡게된 것도 일종의 공격자 프리미엄. 박정규 5단은 132를 교환하고 우세하다고 확신한 나머지 귀중한 선수를 가장 맛있는 곳인 134로 흑 6점을 잡는데 사용했다. 그런데 이 수는 역전당할 수도 있는 실책이었다. 이 6점의 가치는 14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수로는 먼저 좌하귀의 140과 우하귀의 142, 그리고 우상귀의 146을 모두 선수한 다음에 잡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형세는 흑이 모든 곳을 역으로 한다고 해도 이기가 힘든 국면이다. 설상가상으로 흑 135에 손을 빼고 백 136으로 선수한 다음부터는 박정규 5단이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 백 148이 기분좋은 선수. 149를 받지않으면 당장 '참고도'의 백 1로 차단당해 중앙대마가 위험하다. 백 164로 우변을 막아 모든 변수는 사라졌다. 이후의 수순은 총보를 보기 바란다.

<요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디아체, 한게임 꺾고 5위

지난 12일 울산에서 치러진 2007한국바둑리그 8라운드 결과 울산 디아체가 경기 한게임을 3대0으로 물리치고 5위(3승5패·개인 승수 18)로 올라섰다.

이날 대국에서는 강동운 7단이 이정우 6단을, 박승화 2단이 원성진 7단을, 백홍석 5단이 온소진 4단을 차례로 쓰러뜨려 완승을 거뒀다. 한게임은 3승5패(개인 승수 13)로 7위에 랭크됐다.

광주 Kixx는 8라운드가 끝난 현재 3승5패(개인 승수 16)로 6위를 지키고 있다. 오는 26일 광주에서는 울산에 이어 다섯 번째로 2007한국바둑리그 지방투어가 열릴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69> Please change 100,000 Won to U.S dollars 십 만원을 미국 돈으로 바꿔 주세요 A : Please change 100,000 Won to U.S dollars. B : Do you need some small change, too? A : Yes, please. B : Here you are. A : Thank you. A : 십 만원을 미국 돈으로 바꿔 주세요 B : 잔돈이 필요하십니까? A : 네, 그렇게 해주세요. B : 여기 있습니다. * Please change A to B : A를 B로 바꿔 주세요. = will you change A to B? = I want to change A to B. * small change : 잔돈 * 저는 여행차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I'd like to cash this traveler's check. * 돈을 어떻게 바꿔 드릴까요? = How would you like the money?	오하오우 니혼고 <969> 接待費(せったい)清算(せいさん)しなくちゃ。 접대비 정산해야지... A : 松本(まつもと)さん、昨日(きのう)の接待(せったい)ゴルフでうでしたか。 B : 遊(あそ)びで自由(じゆう)にやるのは違(ちが)うから、疲(つか)れるよ。 A : でも、平日(へいじつ)なのにいいですね。 B : まあね、あ、忘(わす)れた。接待費(せったい)清算(せいさん)しなくちゃ。 A : 마즈모토씨, 어제 접대 골프 어땠습니까. B : 재미 삼아 자유롭게 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피곤해요. A : 하지만, 평일인데 좋군요. B : 그렇긴하지. 아, 맞아! 깜빡했다. 접대비 정산해야지... 疲(つか)れる : 피곤하다 平日(へいじつ) : 평일 忘(わす)れる : 잊다 しなくちゃ : ~하지 않으면	니하오 쑹구위 <159> 洗发用品在哪儿 헤어용품은 어디에 있나요 A: 洗发用品在哪儿? Xi fa yongpin zai nali? 세 샴푸 용품 어디에? B: 地下超市。 Dixia chaoshi 지하 마트 A: 怎么走? Zenme zou? 어떻게 가요? B: 走到头, 往左拐, 坐电梯。 Zou dao tou, wang zuo quai, zuo dianli. 직각 마트 끝까지, 좌로 좌회, 엘리베이터 타세요. A: 헤어용품은 어디에 있나요? B: 지하마트요. A: 어떻게 가요? B: 앞으로 가시다가 직진해서 왼쪽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洗发用品 [Xi fa yongpin] 헤어용품 地下超市 [Dixia chaoshi] 직할상가 电梯 [dianli] 엘리베이터를 타다	한자 이야기 <586> 疏通(소통) 소통할 소, 통할 통 소통(疏通)의 사전적 의미는 막힘없이 서로 잘 통하는 상태이다. 즉 인간사이의 뜻이 서로 통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물질만능주의의 팽배와 이기주의의 심화에 따라 현대사회는 인류의 고립(孤立)이라는 비사회적 현상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를 '소통부재의 시대'라고도 부르며, 이제 소통은 인간 존재의 행복을 좌우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직장인들의 80%가 대인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65%가 대인관계 때문에 이직(移職)한다고 말한다. 또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를 중요시하는 시대는 지나고, '의사소통지수(CQ(Communication Quotient))'가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조직속의 소통은 개인과 조직이라는 쌍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또는 조직의 리더는 각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때 조직과 사회는 안정되고 공존(共存)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해외이주노동자나 코시안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호남대학교 공자어카데미> ☎ 383-8867~8	<한여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